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사도행전 18:5-17)

바울은 고린도에서 정서적으로 깊은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면에는 극도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자신이 쥐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은 조직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바울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무게 중심을 이방인에게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속적으로 자기 민족이 먼저이고 이방인은 그 다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방향을 온전히 불드는 일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유대인 사역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마자 고린도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당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은 복음을 강하게 방해하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새신자로 등록하러 온 일입니다. 그리스보는 혼자 오지 않고 자신의 온 집안과 자신을 신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 디도 유스도의 집은 고린도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삶에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눈앞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집착하는 것들을 고난을 통해 강제로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고난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옆에 예비된 은혜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집착을 내려놓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읽어내셨습니다. 주님은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울이 깊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역시 바울이 낙심하여 이제는 침묵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끈질긴 핍박과 고린도 도시의 부도덕함에 지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날 때까지 침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에 계속 머물게 만든 결정적인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성중에 아직 구원해야 할 내 백성이 아주 많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과 함께 고린도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바울을 통해 찾으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읽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지와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낙심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고린도라는 환경은 도리어 바울의 영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병들지 않고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깊은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이 인생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뼈아픈 실패와 절망을 통과해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복된 시간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시며 늘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저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특별히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고 편안할 때는 가급적 귀찮게 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곤 합

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주일 성수와 적당한 봉사로 하나님의 소리를 막으려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것이 은혜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달아나려는 인간의 두 가지 국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는 시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언제나 옳고 복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피난 가던 벧엘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은 그 일을 홀로 실행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동역자로 삼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네 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식을 얻고 부유해지려는 자기 계획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을 때까지 그를 내버려 두셨고, 마침내 압목강가에 홀로 남아 두려움과 직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나 야곱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나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고귀한 생애를 값없이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의 자리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그 목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뜻을 그분의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는 동역자의 삶입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깨달을 때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동참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 살아가십시오.